

기생충은 안심해도 되는가?



최 원 영
가톨릭의대
기생충학교수

우리나라의 1973년 국민 총생산고는 76조원, 그리고 1994년은 303조원이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놀라운 성장이다. “건강소식”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1973년 8월 창간호가 나왔을 때는 46판, 50페이지 갱지의 “건강”이라는 이름이었다. 처음 26,000부가 발행되었으나 점차 발행부수가 줄어 들다가 1978년에는 격월간으로 발행되기도 하였다. 그후 이름이 오늘의 “건강소식”으로 새로워지면서 1980년부터는 다시 월간으로 발행되었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후 1985년 11월부터는 지질도 좋아지고 안정되면서 다시 부수가 증가하였다.

오래 된 일이라서 그 전후사정은 잊었지만 창간호부터 200호를 맞는 동안에 남아있는 편집위원 이름이 유일하게 필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집 책장에서 누렇게 바랜 창간호에서 발견하고는 반가웠던 것만큼 놀랍기도 했다. 창간호에 실린, “기생충은 왜 무서운가?”라는 필자의 글이 아주 생경한 가운데 소중해 보이듯 이 만큼 자란 “건강소식”이 아주 자랑스러워 보인다. 그 내용인즉 1971년 실시된 한국 장내기생충 감염현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었다.

즉 한국인의 감염실태 조사는 인구 1,000명당 1인의 비율로, 지역적으로도 전국을 망라한 것이고 통계전문가에 의해서 전국민을 대표하고 그 성적도 공인된 것이다. 이 사업은 그후에도 매 5년마다 그러니까 1976년, 1981년 및 1986년까지 4차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971년의 국민의 총란 양성률이 84.3%에서 12.9%로 감소하였다. 그후 1991년에 제5차 실태조사는 정부당국자에 의해서 예

산이 삭감되어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기생충학자들과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끈질긴 설득 끝에 1992년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제4차 조사에서 12.9%의 총란 양성률은 다시 3.8%로 저하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총란 양성률중 중요한 몇가지를 소개하면 1971년의 회충란 양성률 54.9%가 1992년에는 0.3%로, 편충란은 65.4%에서 0.2%, 구충(鉤虫)란은 10.7%에서 0.01%로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은 모두가 토양매개성 선충으로서 그동안의 화학비료의 보급, 농촌위생의 향상, 상하수도의 보급, 개인위생의 발달, 집단구충의 효과 등등의 상승효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담수어가 매개하는 간흡충란 양성률은 1971년에 4.6%에서 1992년에는 2.2%로서 감소율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접촉성 기생충인 요충란 감염률은, 본 성적에서는 지난 20년 사이에 1.3%에서 0.9%로 저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이 성적의 약 10배는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외에 아직 미발견이었던 각종 흡충류 감염이 속속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생활양식의 변화와 교통의 세계화로 이제까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풍토병이 끊임없이 수입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애완동물의 증가는 이들과 관계있는 인수공통기생충도 점차 만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 최근 장기이식의 활성화와 각종 항암제 투여에 의한 인체면역기능의 저하 및 AIDS의 등장으로 주목을 끌게 된 기회감염성 기생충질환들이 재인식되고 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의 여파는 자연을 파괴시키고 이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기생충질환의 만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창간호에는 장내기생충, 장티푸스, 이질, 식중독, 뇌염 및 말라리아 등에 관한 기사로 꾸며져 있었으나 지난 6월호의 내용은 대기오염, 수질문제, 암, 마약, 구강보건, 인수공통기생충 및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창간 이후 발전하는 사회에 부응하여 보건교육과 계몽, 나아가서 각종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에 참가하는 적극적 자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하겠다. 국민건강증진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건강소식”이 무럭 무럭 자라나라기를 기대한다. ㉔

건강소식
창간호에는
장내 기생충,
장티푸스, 이질
등에 관한 기사로
꾸며져 있었으나,
지난
6월호의 내용은
대기오염, 수질
문제, 암,
마약, 쓰레기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